

# 파주시, 혁신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

## 파주형 ESG 행정 추진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기대

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GTX-A 노선 착공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,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 올해 또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있다. 민선 7기 시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미래비전을 수립했다.

### 교통혁신·코로나19 대응 등 10대 뉴스 선정

파주시는 '2021년 파주 10대 시정뉴스' 시민 투표에서 '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-A노선 공사추진 등 광역철도망 확충'이 46.9%(1천 794명)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

GTX-A는 최고속도 180km/h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 철도로,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. 현재 본선 터널 굴착 공사와 차량기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.

올해의 시정 뉴스 2위로는 '파주형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지급'(32.8%)이 뽑혔다.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48만여 명에게 933억 원을, 소상공인 등에게 610억 원을 2회에 걸쳐 각각 지급했다.

3위는 '전국 최초 코로나19 이동형 선별검사소 등 시민 안전 사수'(29.8%)가 뽑혔다. 시는 양압식 검체 부스를 탑재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, 접종예방센터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 편의를 도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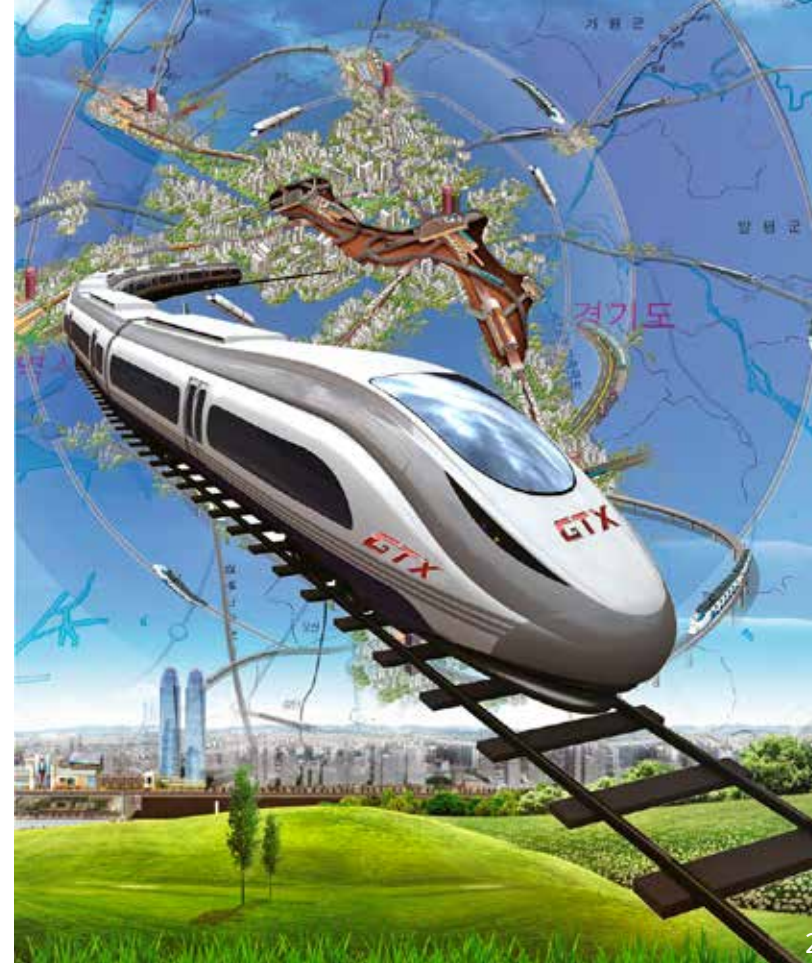
4위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정책인 '광역급행버스 등 광역교통 확충'(26.7%)이 차지했다. 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다. 재작년에는 금촌~혜화행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됐고, 광역급행버스 M7111번의 준공영제 전환이 확정됐다.

5위는 '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또 한 번의 추진사업'(24.6%). 국내 첫 민간중심 개방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한창이다. 메디컬클러스터는 운영신도시 인근에 45만㎡ 규모의 종합의료시설(대학병원)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및 의료·바이오연구센터, 바이오 융복합단지, 배후지원 시설이 들어선다.

6위는 지난해 개원한 34.15ha 규모의 '울곡수목원'(24.1%)이다. 시는 지난 2008년 울곡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. 이후 14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정성 들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수목원을 조성해왔다.



최종환 파주시장



1 광역급행버스 등 광역교통확충 2 GTX-A 노선 공사추진 등 광역철도망 확충  
3 파주형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4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도

개관했다. 축구장 32개 크기인 21만㎡ 규모로 영화·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관광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다.

파주시정 10대 뉴스 선정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~7일 시민 3천 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.

### 2022년은 민선 7기 역점사업 성공적 완성

파주시는 시민들이 뽑은 10대 뉴스를 포함한 민선 7기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향상한다는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라 파주형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행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전략과 가치를 반영한 시정혁신을 추진한다.

탄소중립 등 환경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, 파주형 그린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. 또 가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공정과 공존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.

아울러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소통기반을 넓혀나가 시민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최종환 파주시장은 "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가치를 반영한 시정을 추진하겠다"며 "광역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, 도시 자족 기능 향상 등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한 해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♡



1

7위는 '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'(22.4%)로 산업경제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. 파주는 경기도가 지난해 5월 진행한 공공기관 3차 입지 공모에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진흥원 유치에 성공했다.

8위는 '파주페이 1천200억 원 확대 발행'(18.7%)으로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대를 2배 초과했다. 시는 지난해 월 50만 원, 연 600만 원 한도 내 10%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확대에 기여했다.

9위는 '파주놀이구름 정식 개장'(18.2%)이다. 지난해 10월 23일 개장한 파주놀이구름은 장기 유휴공간이던 유비파크에 EBS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시설로 다양한 테마 공간과 캐릭터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.

10위는 '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'(17.9%)이 뽑혔다. 통일동산지구 에 방송·통신 시설과 체험·관광 콘텐츠가 결합한 스튜디오센터가





나 함께

웃는다

2022

파주

하



파주장단콩웰빙마루